국별 리포트

모잠비크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6. 6.

Ⅰ. 일반개황 1

Ⅱ. 경제동향 2

Ⅲ. 정치·사회동향 8

Ⅳ. 국제신인도 10

Ⅴ. 종합의견 1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Ⅰ. 일반개황

면 적	799천 ㎢	G D P	149.7억 달러 (2015년)
인 구	27.9백만 명 (2015년)	1 인 당 GDP	535 달러 (2015년)
정 치 체 제	공화제(대통령중심제)	통 화 단 위	Metical (MZN)
대 외 정 책	친서방 실리외교	환 율(달러당)	40.0 (2015년)

□ 아프리카 남동부 연안에 위치한 모잠비크는 한반도의 3.6배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26.5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족 구성은 Shangaan족, Chokwe족, Manyika족 등 원주민(99.66%), EuroAfrians(0.2%), Indians(0.08%) 등임.

□ 종교 구성은 카톨릭(28.4%), 개신교(27.7%), 무슬림(17.9%), 기타(7.2%), 무교(18.7%)이며, 언어는 공용어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토속어로 에마쿠와어, 모잠비크어 등이 사용됨.

□ 약 500년간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다 1975년 독립하였으며, 이후 곧 내전 발발로 황폐화되었음. 1992년 종전 후 양호한 성장률을 지속했으나, 여전히 1인당 GDP 535달러(2015년 기준)에 불과한 최빈국이며, 대외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World Development Indicator('16.2월)에 따르면 모잠비크에 대한 ODA 유입규모는 연간 21억 달러 수준('14년 기준)

□ 대표적인 포르투갈어 사용 국가이며, 알루미늄, 석탄 등 광물자원과 천연가스(LNG)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최근 수년간 FDI 유입이 증가했음.

□ 그러나 인프라 구축, 자원개발 프로젝트 등으로 인한 자금소요로 GDP 대비 외채규모가 높은 수준이며,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성장률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 정치적으로는 집권여당인 민주전선(FRELIMO)의 장기집권체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빈부격차 심화와 장기집권으로 누적된 야당의 불만이 정치·사회 불안 요소임.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2016년 경제성장률은 6%로 하락 전망

o 모잠비크는 탄광, 인프라, 초대형 가스전 개발 관련 FDI 유입 증가 등에 힘입어 2014년까지 7%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o 그러나 2015년에는 대홍수로 인한 농업 부문 생산량 감소, 인프라 파괴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하락한 6.3%의 경제성장률에 그쳤음.

o 2016년에는 모잠비크의 핵심 수출 시장인 인도의 수요 증가에 힘입은 석탄 생산량 증가가 경제성장률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나, 재정적자로 인한 정부지출 감소,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FDI 유입 감소, 가뭄에 의한 농업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해 성장률이 6%대로 하락할 전망임.

* FDI 순유입(억 달러) : 35.8('11)→56.3('12)→61.8('13)→46.0('14)→38.3('15)

□ 공공부채 부담 가중 및 재정수지 적자 지속

o 2015년 공공부채는 GDP의 83%를 기록했고, 자국통화인 메티칼화도 2016. 5월 기준 전년대비 50% 이상 평가절하된 점 등을 감안시, 2016년 공공부채는 GDP의 10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o IMF는 모잠비크 공공부채 중 대외부채를 96.4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2016. 4월 모잠비크가 은닉한 공공부채 13.8억 달러*가 드러남에 따라, 대외원조도 중단된 상황임.

* 방산업체인 Proindicus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6.22억 달러, Pemba 항만 사업 관련 MAM(Mozambique Asset Management)에 대한 보증 5.4억 달러, 2009~14년 내무부에 대한 보증 2.3억 달러 등

- IMF는 단기구제금융 미지급 잔액 1.7억 달러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WB도 예산지원 관련 미지급 잔액 4천만 달러 지원 중단(프로젝트 원조는 지속)

o 재정수지는 공공 부문의 임금 인상, 사회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꾸준한 지출 증가로 2014년 GDP 대비 -10.4%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긴축 재정을 통해 적자 비중은 축소되는 추세임.

o 그러나 예산지원 관련 대외 원조 중단이 장기화되고, 메티칼화의 평가절하로 인한 부채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경우 재정 적자가 악화될 위험이 상존함.

□ **통화가치 급락 등으로 물가상승률 상승 전망**

o 물가상승률은 메티칼화 평가절하 및 가뭄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15년 2.4%에서 2016년 6.0%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임.

- 메티칼/달러 환율은 과중한 부채 수준 및 디폴트에 대한 우려로 인해 2016. 5월말 기준 전년 대비 50% 이상 상승한 58.5메티칼/달러 기록

- 모잠비크 중앙은행(BDM)은 급등하는 환율 방어 및 소비자물가 상승 압박에 대한 조치로 '15. 10월부터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6.75%p 인상한 결과 '16. 6월 현재 14.25%를 기록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e}	2016^{f}
경 제 성 장 률	7.2	7.1	7.4	6.3	6.0
재 정 수 지 / G D P	-3.8	-2.6	-10.7	-6.0	-4.0
소비자물가상승률	2.1	4.2	2.3	2.4	6.0

자료: IMF.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농업 및 에너지·광업 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

o 농업 부문이 GDP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어 날씨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큼.

o 최근에는 알루미늄, 석탄 등 광물자원 및 천연가스 등 자원 개발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어, 글로벌 수요 감소 및 FDI 유입 둔화시 경제성장 둔화가 불가피함.

- 과거 수출품목은 새우, 캐슈너트 등 농수산물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알루미늄, 석탄, 천연가스 등의 수출이 총수출의 75% 이상 차지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 잠재력

o 모잠비크는 다양한 광물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나, 오랜 내전 기간, 제도적 기반 부족, 낙후된 인프라 등으로 자원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외국 자본들의 관심이 높음.

- 현재 채굴되는 주요 광물은 알루미늄, 티타늄, 석탄, 금 등이며, 철광석, 우라늄, 코발트, 니켈, 구리 등도 채굴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초대형 가스전의 발견,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개발 지연

o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현재까지 발견된 모잠비크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2.8조㎥이고, 총 잠재 매장량은 5.3조㎥로 추정됨(세계 9위 수준).

o 미국 Anadarko Petroleum社, 이탈리아 ENI社 등의 탐사작업으로 2009년 북서부 Rovuma 지역에서 대규모 해상 가스전이 발견됨.

- ENI社와 함께 제4광구 가스전 개발 사업에 참여한 우리나라 가스공사(지분 10%)는 2011년~13년 대형 가스전 연이어 발견

  * 모잠비크는 해상 가스전과 별도로 2012년 Pande and Temane 육상 가스전에서 소량의 가스를 생산, 일부 파이프라인을 통해 남아공으로 수출하고, 일부는 자국에 공급하고 있음

o 그러나 2014년 이후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가스전 개발이 주춤하면서 투자 자본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8~20년으로 전망했던 본격적인 LNG 생산 및 수출 시점이 2020~22년으로 연기됨.

다. 정책성과

□ 광업 부문의 투명성 증대를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노력

o 정부는 광업 부문의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부터 국제기준인 EITI(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에 따라 사업을 수행, 2012년 규정 준수국가(EITI Compliance)로 승인되었음.

□ 전반적인 기업환경 개선은 미흡

o 모잠비크는 세계은행의 2016년도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에서 189개국 가운데 133위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5단계 하락하였음.

- 전기에너지, 비즈니스 개방성, 국경교역, 소액투자자 보호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재산권 등록, 세금 납부 온라인 시스템 도입, 건설허가 관련 분야 등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3. 대외거래

□ 경상수지 적자 기조 지속

o 경상수지는 자원개발 및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등의 수행을 위한 자본재 및 기술 도입으로 적자 기조를 지속, 2015년 GDP 대비 -44.9%를 기록함.

o 2016년에도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주요 교역국인 유럽과 남아공의 경기 부진 등으로 GDP대비 -46.9%의 경상수지 적자가 전망됨.

□ FDI 유입 둔화로 외환보유액 감소

o 외환보유액은 자원개발 및 기타 산업 전반에 걸친 FDI 유입액 증가로 2013년 약 31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14년 이후 FDI 유입이 둔화됨에 따라 2015년 24억 달러로 감소함.

□ 대규모 프로젝트로 인한 외채규모 증가

o 인프라 구축, 자원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막대한 자금 소요로 외채규모가 급증하여 2015년 말에는 GDP의 95.8%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에는 136% 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D.S.R.도 2015년 기준 28%로 다소 높은 수준임.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2	2013	2014	2015e	2016f
경상수지	-6,822	-7,341	-6,884	-6,724	-5,865
경상수지/GDP	-45.9	-45.9	-40.8	-44.9	-46.9
상품수지	-4,048	-4,357	-4,035	-4,088	-2,675
수출	3,856	4,123	3,916	3,414	3,495
수입	7,903	8,480	7,952	7,502	6,170
외환보유액	2,770	3,142	3,010	2,411	2,060
총외채잔액	10,755	12,345	12,838	14,331	17,005
총외채잔액/GDP	70.5	77.1	76.2	95.8	136.0
DSR	8.6	3.8	15.6	28.3	31.2

자료: IMF, EIU, OECD.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민주전선(FRELIMO)의 장기집권 체제 유지

o 집권여당 민주전선(FRELIMO)은 1975년 모잠비크를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시킨 Samora Machel을 시작으로, 현 대통령인 Filipe Nyussi에 이르기까지 40년간 장기집권하고 있음.

- 2014. 10월 총선 결과 FRELIMO가 총 250석 중 144석을 차지하였으며, 야당인 민족저항(RENAMO)은 89석, 모잠비크 민주운동(MDM)은 17석을 차지함.

□ 집권세력 내 분열 심화 가능성 잠재

o FRELIMO 내 강경 노선(전 대통령 Armando Guebuza 계열)과 온건 Nyussi 정부 간의 잠재된 갈등이 정부정책의 효율적 실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음.

o 특히 최근 모잠비크 정부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린 약 14억 달러 공공부채 은닉 사건, 당국의 부패혐의에 대한 조사 요구 등은 여당 내에서 개혁파와 보수파 간의 분열을 악화시킬 전망임.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최근 RENAMO 무장 반군 세력의 공격으로 정치·사회적 불안 심화

o 내전(1977~92년)의 상대였던 FRELIMO와 제1야당 RENAMO는 RENAMO의 중북부 지역 자치 요구 등을 놓고 여전히 갈등의 골이 깊음.

o 2014년 양당 간에 중재된 평화협정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장기 집권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RENAMO 무장 세력의 공격이 최근 빈발함.

o 양당 간의 대화가 재개될 전망이나, FRELIMO 내 강경 세력의 호전적 자세, 타협점 모색이 어려운 협상 조건, RENAMO의 무력 사용 지속 등으로 향후에도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

□ **빈부격차 심화로 인한 사회불안 우려 잔존**

o 높은 경제성장의 과실이 빈곤 감소로 이어지지 못한 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잠재되어 있으며, 이는 최근 재정 악화로 인한 정부지출 감소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3. 국제관계

□ **서방 세력 및 자원 수입·투자국과의 관계 강화**

o 독립 후 구소련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1980년대 후반 공산체제가 붕괴되면서 미국, 일본 및 서유럽 국가와의 관계 강화에 주력해 왔음.

o 최근 철도, 광업 부문의 주요 투자국인 중국, 인도, 호주 등과의 관계가 강화되어 왔으며, 가스전 발견으로 아시아의 주요 LNG 수입국들과의 관계도 강화되고 있음.

□ **남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o 인접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남부 아프리카 경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1989년 가입)의 주요 일원으로서 역내 평화유지를 위한 중재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 탕감 및 리스케줄링 경험 보유

o 고채무 저소득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 HIPC) 이니셔티브에 따라 1999년과 2001년 각각 37억 달러와 30억 달러의 공적외채를 탕감 받았고, 2006년에도 다자간 채무탕감 이니셔티브(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RI)의 체결로 29억 달러 규모의 채무를 탕감받는 등 세 차례의 외채탕감 및 리스케줄링 경험이 있음.

□ '16년 정부보증 채무 불이행

o 2014년 모잠비크 정부 보증으로 국영기업 MAM(Mozambique Asset Management)이 Pemba 조선소 사업을 위해 러시아 VTB Bank로부터 차입한 5.35억 달러 관련, VTB Bank가 모잠비크 정부의 채무조정 1차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2016. 5. 23자로 도래한 채무원리금 1.78억 달러의 상환에 실패함.

- 또한 2016. 4월에는 국영 참치기업 Ematum의 부실채권 6.9억 달러에 대한 채무교환이 이행*되었는 바, Ematum의 부채 조달금액의 상당부분이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었던 것으로 드러남.

* 이자율(6.3%→10.5%), 금액(6.9억 달러→7.2억 달러), 채권만기('20년→'23년) 등 채무조건 변경

2. 국제시장평가

□ 2016년 주요 기관별 모잠비크 신용도 2~5단계 급락

o S&P 2단계 등급 하락 : B- → CCC('16.5.27)
o Moody's 2단계 등급 하락 : B2 → B3('16.3월) → Caa1('16.5.20)
o Fitch 5단계 등급 하락 : B → CCC('16.4월) → CC('16.5.23)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 (2015. 6)	6 (2014. 6)
S&P	CCC (2016. 5)	B- (2016. 4)
Fitch	CC (2016. 5)	CCC (2016. 4)
Moody's	Caa1 (2016. 5)	B3 (2016. 3)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93. 8. 11 (북한과는 1975. 6. 25)

□ **주요협정** :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2010년)

□ **교역규모** : 79,373천 달러(2015년 기준)

<표 4> 한·모잠비크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주요 품목
수 출	92,375	101,296	67,614 (-33%)	합성수지, 기타석유화학제품, 전자응용기기, 자동차 등
수 입	14,537	28,924	11,759 (-39%)	석탄, 구리, 기호식품 등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의 모잠비크 앞 해외직접투자** : 6개 투자법인, 총 41,749천 달러 (2016. 3월 기준)

□ **EDCF 및 천연가스 개발 관련 협력**

o 우리 정부는 2012. 7월 모잠비크 광물자원부와 산업자원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동년 11월 모잠비크를 아프리카 54개국 중 우선 경협전략국으로 선정한 바 있음(현재 중점지원국으로 분류).

- 당행 EDCF 2016. 6. 14일 기준 승인금액 5,060억원, 집행금액 1,841억원

o 외교부는 2013. 10월 수도인 마푸토에 대사관을 개관하였으며, 동년 11월 KOTRA도 무역관을 마푸토에 신규 개설함.

o 우리나라 가스공사는 Rovuma 가스전 개발 사업 외에도, 마푸토에 천연가스 공급 배관을 건설(벽산엔지니어링, 대주이엔티 등 중소 건설업체 15개 참여)하고 지역 내 14개소에 산업용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운영 중임.

Ⅴ. 종합 의견

□ 모잠비크는 1인당 GDP 535달러에 불과한 최빈국이나, 풍부한 광물 자원 및 대형 가스전 개발 등 성장 잠재력은 높음.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FDI 유입 감소, 재정적자로 인한 정부 지출 감소, 농업 생산물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종전 7%대에서 6% 이하로 낮아질 전망임.

□ 또한 최근 여당인 FRELIMO의 장기 집권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제1야당 RENAMO의 반군 무장세력 공격이 발생함에 따라, 정치·사회적 안정성이 다소 저하되었음.

□ 인프라, 자원 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한 공공부채 부담이 과중한 수준으로, 특히 은닉한 공공부채 13.8억 달러가 드러남에 따라 IMF 등의 대외 원조도 중단되는 등 신뢰성이 저하된 상태임.

□ 2016. 4월에는 국영 참치기업 Ematum의 부실채권 6.9억 달러에 대한 채무교환이 진행된 데 이어, Pemba 항만사업 관련 러시아 VTB Bank로부터 차입한 2016. 5. 23자 만기도래분 1.78억 달러의 상환에 실패하는 등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저하된 상황임. 이에 따라 국제 신용 등급도 2016년에만 2~5단계 하락하였음.